

北 도발위협 속 軍장성들 골프 논란

靑 민정, 공직기강 확립 진상파악 착수

박대통령 “특별히 주의해 달라” 경고

북한이 연일 대남 위협공세를 펼치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일부 현역 장성들이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현역 장성들은 주말인 9일과 10일 군 전용 골프장(체력단련장)인 태평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군 전용 골프장이 전국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진상을 파악해 보면 휴일 골프를 즐긴 장성은 더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장성들이 (주말에)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 중 주요 직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주요 직위자들은 현 상황을 감안해 스스로 골프 약속을 취소했다”면서 “주요 직위자들은 북한의 군사 도발 때 1시간 내에 제자리로 돌아와 상황을 조치해야 할 간부들”이라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인들이 전용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위협이 연일 계속되는 현 상황에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합참은 지난 6일 낮 12시부터 대북 경계태세를 한 단계 격상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를 즐긴 군인들에 대해 안보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

들이 주말에 골프를 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며 “특별히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런 언급은 군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안보 불감증에 이 나라가 제대로 갈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현역 장성 골프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파문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지 않곤속스러워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주말 골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면서 “여단급 이상

지휘관들에 대해 1시간 내 복귀할 수 있도록 위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오늘부터)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됐기 때문에 해당자들은 골프를 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주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골프장을 찾은 군인들이 있다”면서 “최전방에서 연일 대비태세로 쉬지도 못하는 병사와 부사관, 장교들이 어떤 심정이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골프를 친 장성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남뉴스

교황 선출 콘클라베

첫째도 둘째도 ‘보안’

바깥세상과 완벽 ‘단절’

12일(현지시각) 시작되는 콘클라베(교황 선거)는 말 그대로 철통보안 속에 진행된다. 수세기

에 걸쳐 내려온 이같은 교황 선출 절차의 제1원칙은 바깥세상과의 완벽한 ‘단절’이라고 AFP통신은 11일 전했다.

콘클라베가 열리는 시스티나 성당은 투표에 앞서 철저한 도청 장비 검사를 거친다. 사전에 도청장비가 설치됐을 것을 우려해

성당 실내 습도를 관리하는 장비마저 제거할 정도다. 이 밖에 회합 장소의 카펫을 치우고 전구나

수도관, 전선 등을 세밀히 검사한다. 투표가 시작되면 예배당 내부에는 그 어떤 통신기기도 허락되지 않으며, 전화 차단기가 가동된다.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단은 물론 교황청 내 모든 직원은 투표 개시에 앞서 비밀 엄수와 외부 개입 배제를 맹세한다.

추기경들은 새 교황이 확정될 때까지 바깥세상과 교류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교회로부터 파문을 감수해야 한다. 이들은 교황청 도착과 동시에 모든 휴대 통신기기를 반납한다.

과거 교황 선출 과정에서 로마의 귀족과 같은 외부 세력의 입김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같은 비밀 전통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시절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하면서 한층 강화됐다고 AFP는 전했다.

반면 보안 유지를 위해 고수하는 ‘불변’의 전통도 있다. 콘클라베 기간 허용되는 언어는 라틴어

콘클라베-신임 교황 선출 절차

- 교회법에 따라 교황의 사망 또는 퇴임 후 15~20일 사이에 콘클라베가 열려야 함 (12일 시행 예정)
- 48개국 만 80세 미만 추기경으로 구성된 115명의 선출인단 (총 117명 중 불참 인원 제외)
- 비밀 엄수-외부 개입 배제 맹세 후 비밀 투표
- 하루 4차례의 비밀투표 실시 (오전, 오후 각 2차례씩)
- 추기경은 자신에게 투표할 수 없음
- 투표는 선거인 전체의 2/3 이상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로 진행
- 선출된 후보자(피선자)가 신임 교황직 당선에 동의하는 즉시 콘클라베 종료
- 신임 교황의 이름 명명
- 수석 부제 추기경은 “하베무스 피파”(Habemus Papam-새 교황이 탄생했다는 뜻)이며 새 교황의 선출 사실과 이름 공포

가 유일하며, 모든 투표 절차는 펜과 종이로 이뤄진다. 선거 부정의 여지가 있는 전자투표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단에게는 개인 화장실을 갖춘 ‘호텔급’ 숙박시설이 제공되지만, 추기경들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말 그대로 편안한 휴식이 전부다.

이들 방에는 인터넷은 물론 라디오와 TV, 신문 등 바깥소식을 전하는 그 어떤 매체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투표가 끝나고 성 베드로 성당 굴뚝으로 새 교황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때 추기경들은 비로소 밀린 페이스북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신자들과 기쁨의 트윗을 나눌 수 있다.

콘클라베가 지난 100년 동안 5일 이상 지속한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차기 교황은 다음 주말

께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013. 3. 7 ~ 3. 8 제1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헌정위원회 대의원들이 7일 부산시의회를 방문, 순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 있다. 앞줄 왼쪽이 전남도의회, 뒤줄 왼쪽 두번째 박동수·네번째 이준호·다섯번째 김동철 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지방 정가

정현애,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결

통합진보, 평화협정 체결 촉구

광주시의회 정현애(민주·비례) 의원은 11일 ‘광주시 여성 발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인 성 평등 기본 조례가 소관 상임위인 환경복지 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에 국한되지 않고 성 평등과 가족친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전반적인 성 평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시의 실정에 맞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재 여성정책이 ‘여성’의 발전만이 아닌 양성의 균등한 발전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부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지방의원단은 11일 오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한미전쟁 연습 중단, 평화협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대북제재와 한미연합 전쟁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전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평화애호세력과 손잡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반전평화행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금주부터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108매, 비상시국회의, 촛불집회, 유인물 배포, 평화콘서트 등 각계단체와 비상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시동

전남도의회, 경남·부산시의회 의장단 등 만나 홍보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홍보활동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기도서) 소속 위원들은 지난 7~8일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 의장단을 잇달아 만나 정원박람회의 의미와 콘텐츠 등을 소개했다.

이들은 “박람회 기간 상임위원 현직활동은 물론 사무처 전 직원과 시민들이 박람회장을 찾아 세계의 정

원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시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도서 위원장은 11일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전국적 붐 조성을 위해 특위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국제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순천만 일원에서 열린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정부특보→시민특보 변경 공모

광주시는 정부특보를 시민특보로 직제 변경하기로 하고 공모를 통해 뽑기로 했다.

광주시는 11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부특보 직제를 시민특보로 변경하고 공고기간(10일)을 거쳐 4월 초에 임명할 계획이다.

계약직 급급에 해당하는 시민특보는 시민·사회단체와 유대관계 등을 감안해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고려해 시민특보를 임명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장인균 전 정부특보가 2년 임기를 마친 뒤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 7개월째 공석이다. 정부특보 역할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형석 경제부시장이 맡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경매·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하지않고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원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사구광주)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은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토지 급구!
(매수자 대기) **2억~10억**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 “담양” 무인텔
- 객 실 : 32개
- 현 상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중앙공인중개사

♣부동산 구함

- ☆.아파트 밀집지역 병 의원
- 신축부지 약 250평 내외
- ☆.지하철 운전역 인근 광종간
- 대로변 사옥부지 150평 내외

♣.대지.전.답.임야

- ☆.광산구 동산동 학동마을 인근 전 5,400㎡(1,634평)
- 매매가 평당9만원
-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 매매가 평당150만원
- ☆.광산구 송촌동 자연녹지
- 답2,988㎡(904평)
- 매매가 평당60만원

♣.전원주택지

- ☆.광산구 오문동97번 시내버스종점 전원주택지(전원종읍)전, 436㎡ (737평) 매매가 평당 27만원
- 총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상임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소남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벨 011-602-2532
(광주중앙 신문잡영, 대인동 소임사건대면)

급매 상가/원룸

- ▶ 총 합계 : 보증금 4,700만 원세794만
- ▶ 1층 편의점 1개 원룸 21개, 투룸 4개
- ▶ 토지면적 : 330.58㎡ (100p)
- ▶ 건축면적 : 737.19㎡ (223p)
- ▶ 매매가 6억 8천(용자 2억4천 4백 포함) 보증금 4천7백만 원, 월세 794만원 용자금과 보증금 공제하면 실투자금 3억3천9백만 대출이자 5.7% 월 116만원 공제하면 월순 수익 678만원 년수익을 20% 편의점 운영하면서 원룸관리하시면 월수익 1,000만원 이상 가능함.

문의: 동아공인중개사
011-647-4747

유통화자사매각

- ▶ 순천시 조례동 587-4의 2필지
- ▶ 에코그라드 호텔
- ▶ 토지2008㎡(607평)
- ▶ 건물22759㎡(6,684평)
- ▶ 감정가격 450억4천
- ▶ 매매가격 220억

문의 : 011-684-3886